

# 경관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곡성

### 소나무 1천300여그루 가로 조성 '의절의 고향' 상징 郡 산림사업소에서 사업 추진, 55억원 예산 절감도

곡성군이 도로변에 낙락장송 소나무를 심는 등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자연속의 가족마을'이라는 이미지 제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곡성군의 이같은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관디자인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주도한 공공디자인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소나무 가로 특화조성 사업. 곡성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호남고속도로 곡성IC에서 곡성을 기차마을에 이르는 도로변에 50~60년생 적송 1천269그루를 심었다.

이들 소나무는 직경(말뚝 기준) 40cm 안팎에 높이 13~15m의 낙락장송으로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소나무의 기상을 통해 '의절(義節)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를 심어주고 있다.

곡성군이 가로경관의 대표수종으로 소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관내 수종의 70%를 소나무가 차지하는 등 대표 향토자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고 신송겸 장군 등을 배출한 의절의 고향과 소나무 이미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군은 이를 위해 가로변 소나무를 모두 관내에서 채취해 사용했다. 특히 다른 지자체가 조경업자에게 조성사업을 맡긴데 반해 곡성군은 군 산림사업소에서 직접 추진, 5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뒀다.

군은 소나무 가로숲 사업을 확대해 올 가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 선정됐던 심진강변의 죽곡면 하한리~오곡면 오지리일대 가로변에도 심을 계획이다.

곡성군은 더 나아가 현재 기차마을에만 식



곡성군이 지역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활용한 경관 디자인으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차마을 주변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낙락장송들. /장필수기자 bungi@

재된 유채꽃·자운영 등 다른 경관작물을 곡성IC~기차마을에 이르는 주변 부지에 심는 한편 소나무 밑에는 철쭉을 심어 나무와 꽃이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규성 곡성부군수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희망만들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도로·문화·경작분야로 공공디자인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i@kwangju.co.kr

## DJ 생가에 '노벨 평화공원' 조성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

신안군은 "하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 '노벨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노벨 평화공원은 사업비 50여 원을 들여 노벨 평화상 기념관과 관리동,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신안군은 하의도에 평화공원이 들어서면 인근의 해양체험공원, 농민운동 기념관 등과 함께 관

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 생가는 집터만 남아 있었으나 종친들이 중심이 돼 1999년 9월 60여년만에 원형대로 완전 복원했다.

복원된 생가는 초가 본채 6칸(59m)과 헛간(20m)으로 2002년 12월 방화로 상당 부분이 훼손됐으나 다시 복원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 신안 증도·무안 갯벌 도립공원 지정

신안 증도 갯벌과 무안 갯벌이 4일 전남도에 의해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됐다.

갯벌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안 증도 갯벌은 화도를 중심으로 폭 4km에 달하며 학술적인 연구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안 갯벌도 원시성을 갖춘 희귀 동물이 서식하는 등 다양성이 뛰어나 국가지정 연안습지 1호이자 랍사르(국제습지보호협

약)에 등록돼 있다.

이 두 곳은 전국 최대의 염전 등 다양한 해양문화자원과도 인접해 있어 도립공원 지정으로 갯벌 생태관광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탐방객을 위한 갯벌 관찰로와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 등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인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 경찰청,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 한전 등 이전, 치안수요 급증...남악 이전 재검토 필요

전남지방경찰청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와 전남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011년까지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삼향면 남악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등 관련 기관이 이전하는 나주 혁신도시의 치안수요 급증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나주로 이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나주를 비롯한 담양과 장성 등 전남 중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나주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김모(52·나주시 영강동)씨는 "단순히 도청이 있기 때문에 남악으로 경찰청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치안수요 증가 전망과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할 경우 나주혁신도시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는 A모씨는 "조직 내에서도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양승규 경무과장은 "전남청이 옮기게 될 경우 광주 근무가 어렵게 된 일부 직원들이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장소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함평군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함평군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다.

함평군은 지난 1998년 국가 시책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농업을 선포한

뒤 나비와 꽃을 소재로 한 나비축제를 9년 연속 성공시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세계 유일의 친환경 엑스포인 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또 나비축제와 함께 갯벌체험학습, 꽃무투 콘서트, 국학대전 등 계절별 특색있는 이벤트를 열었고 자연생태공원 개원에 이어 엑스포 공원을 조성하는 등 사계절 생태관광의 명소가 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해외연수 '투명 공개' 눈길

### 광산구의회...패키지 여행 방식 중단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투명하고 유익한 해외연수를 위해 연수 계획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의회 전양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의회 사무처 직원 3명과 함께 오는 10월 7박9일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3개국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구의회가 공개한 해외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해외연수에서 1인당 280여만원(의장은 320여만원)을 경비로 사용한다.

연수 기간동안 방문할 장소와 의원들의 활동 계획도 공개됐다.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의원들은 슈발바흐 시의회와 노인 복지

기관, 태양열 주택단지, 자전거 전용도로, 도심 하천 등을 방문하며 오스트리아와 체코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묘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의원들은 연수를 떠나기 전 광주의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등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연수 국가들과 비교할 계획이며 연수를 다녀와서는 경비 지출 내역 등이 상세히 담긴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관광지 방문 위주로 돼 있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일반 관광객과 함께 떠나는 해외연수가 연수 기간동안 방문할 장소와 의원들의 활동 계획도 공개됐다.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의원들은 슈발바흐 시의회와 노인 복지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생태도시 화순, 다시 찾고 싶어요"

### '그린투어' 참여 도시민들 재방문 요청 쇄도

화순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Green)투어'가 재방문 신청이 쇄도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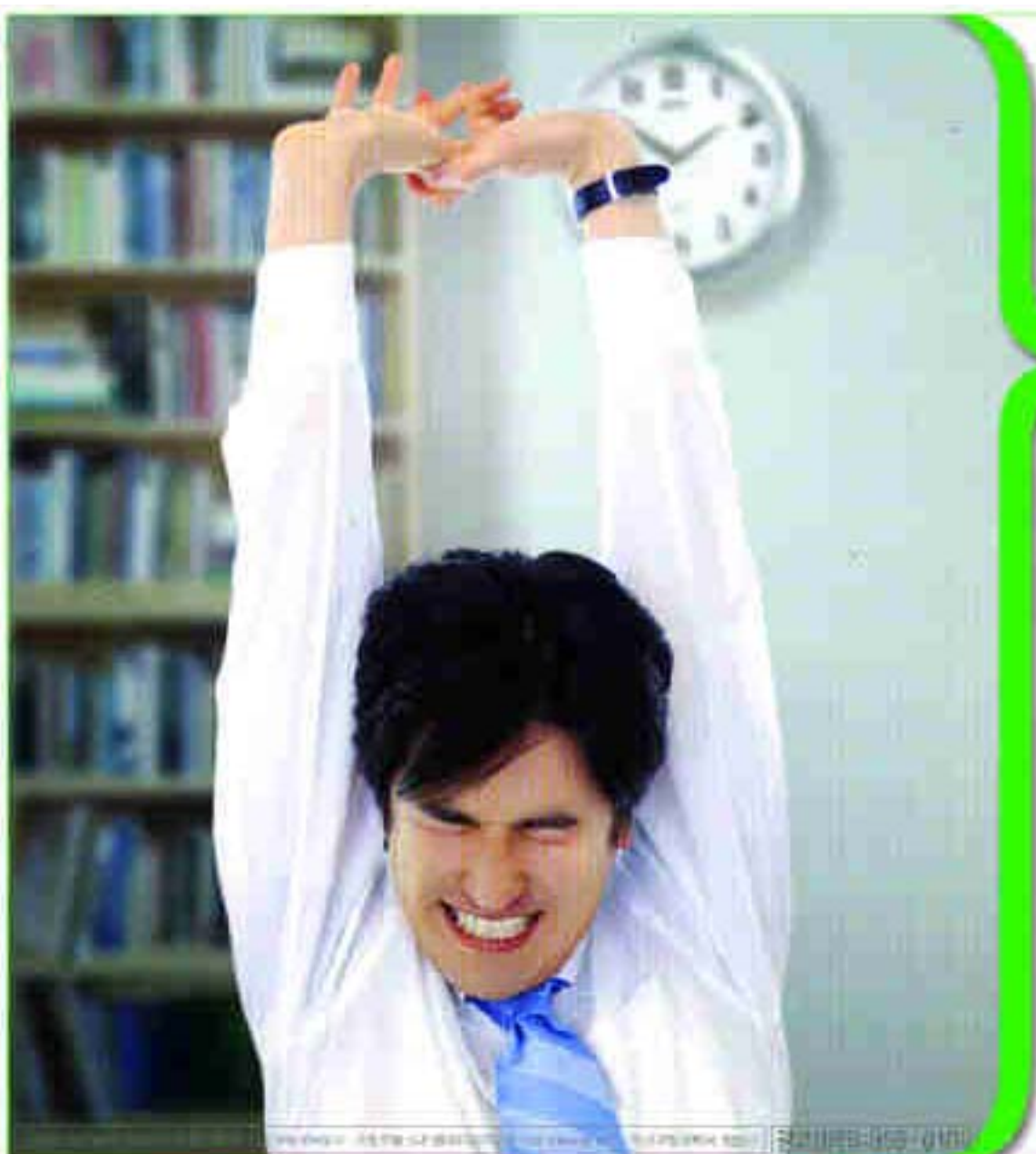
지난달 29일 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현장을 둘러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부코오롱 아파트 부녀회(회장 유혜자)는 7월중 다시 한번 화순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 또 지난달 27일 화순을 방문한

서울 양천구 목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최혜경)도 구입농산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부녀회원들은 화순 방문시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를 꼽았다.

이들은 "화순에 이렇게 좋은 산림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아토피 체험 현장이 빨리 완성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풀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활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활산화제 보강: 비타민 E, 폴리페놀, 미연동 활성비타민 보강  
\*비타민 B1, B2, B6,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인오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크롬, 망간, 구리, 몰리브덴, 코발트, 니켈, 주석, 붕소, 아연, 셀레늄, 크롬, 망간, 구리, 몰리브덴, 코발트, 니켈, 주석, 붕소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엽산, 인오신, 판토텐산, 엽산, 인오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크롬, 망간, 구리, 몰리브덴, 코발트, 니켈, 주석, 붕소

제품문의 080-022-1010(수선자투금) www.aronamin.com

**비타민 C 1200mg**  
1일 2회이면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